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요즘 들어 까치집을 자주 올려다보게 된다. 생각보다 많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바로 옆에도 5층 높이의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지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저렇게 정교하게 집을 지을까, 절로 감탄하게 된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금, 까치도 사람처럼 새봄을 반겨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까치는 큰 나무 위에 마른 가지를 모아 공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아무렇게나 나뭇가지를 엮은 것 같은데 실은 정교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니 놀랍다. 나뭇가지가 쌓이면 서로 얽혀 '재밍' (jamming)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한 조각이 움직이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단단히 고정된다. 어수선한 머리를 까치가 집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 어수선함 속에 탄탄한 질서와 과학이 있다. 까치집 아래 떨어진 나뭇가지가 많으면 그 주인은 집 짓는 게 서투른 어린 까치라고 한다.

사람과 함께 살아온 텃새 까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류다. '나라 새 뽕기 운동' (1964년, 국제조류회의 한국본부와 한국일보사)에서 1위로 뽑혔고, 지자체의

까치집을 올려다보며

상징 새에도 까치가 가장 많다.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益鳥)이며 반가운 소식을 알리는 길조(吉鳥)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까치가 남쪽 가지에 집을 지으면 그 나무에 가까운 집의 주인에게 벼슬자리 같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도 했다.

까치는 정직한 새다. 집을 짓되 매우 높게 하고 짜임새를 튼튼하게 하며 새끼를 기르되 사람들이 그 교미하는 때를 볼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까치는 꼬리가 길어 바람이 옆에서 불면 꼬리가 기울어지고 뒤에서 불면 꼬리가 꺾이므로 언제나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선다. '회남자(淮南子) 무칭훈(繆稱訓)에 "까치집을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안다"(鸛巢知風之所起)는 말이 나온다.

정약용(丁若鏞)은 '중수 만일암기(重修挽日齋記)라는 글에서 "집을 지을 때 누에는 창자에서 실을 뽑아 내고, 제비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까치는 열심히 풀과 뽕잎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피곤한 줄 모른다"고 썼다. 인간이 집을 짓는 것도 이들 미물과 다를 바 없고 목숨의 길고 짧음을 이해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처자식과 후손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까치를 통해 인간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 까치가 등장하는 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규보(李奎報)는 까치가 정남쪽 나무에 집을 짓자 짐짓 대범한 척하다가 "이 엉뚱한 새가 집 짓는 걸 보고/ 기쁜 빛이 눈썹가에 나타나/ 초조하게 집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눈을 들어 높은 나무 우러른다."고 읊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덕무(李德懋)의 글이다. 마포 외삼촌 맥의 큰 산수유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절반쯤 집을 짓고 가버리자 외삼촌이 "내가 상량문을 지으면 까치가 집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상량문을 지었더니 까치가 마침내 집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게 한 사람도 우습지만 쓰란다고 그대로 쓰는 사람도 대단하다. 다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까치는 사실 사나운 새이면서 전신주 같은 곳에도 집을 지어 전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짓도 한다. 시끄럽게 떠들면 '아침 까치 같다'고 하고,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을 가리켜 '까치 뱃바리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까치의 좋은 면만 보여 허거나 과일을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남겨 놓는 것은 인간 사회에 어둠과 부정적인 일이 하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장유(張維)의 시가 까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백로는 원래 희고 까마귀는 본디 흑색/ 흑과 백이 반반인 건 나무 위의 그 까치/ 하늘이 만물 낼 때 색깔도 정해 주었나니/ 흑백으로 미추(美雛)를 나눠서는 안 되리라."

갈라지고 나뉘어 원수처럼 매일 싸우고, 흑백 논리로 모든 걸 판단하는 우리 사회를 이 시를 읽으면서 더욱 개탄하게 된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발 세상이 나이지기를 바라면서 요즘 자주 까치집을 올려다보고 있다. 흑과 백이 반반인 새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날아다니며 제 할 일을 다하고 있다.

청춘 특특



박영진
조선대 시각문화큐레이터학과3년

대학교 3학년은 '사망년'이라는 은어로 불린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마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대학 생활의 권태감과 동시에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재밌는 1, 2학년엔 반해 3학년은 많은 것에 익숙해지고 권태감을 느낀다. 더불어, 적은 학점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에 비해 채워야 할 학점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취업도 걱정돼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며 다 놓아 버리고 싶은 모순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그 '사망년'의 기로에 서 있다.

1학년과 2학년 초·중반의 시기에는 돈과 수료증으로

경험의 가치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환산되지 않더라도 '경험 쌓기'에 열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의 가치'에 신경 쓰게 됐다. 그 가치는 '돈을 많이 주는가' '사회가 인정해주는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로 귀결됐다. 그 외의 가치들은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려됐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내면을 삭막하게 만들었다. 내적 동기유발이 아닌 스펙을 위한 경험 쌓기에 치중할 나머지 나를 돌보지 못한 것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절실했다. 이대로 등 떠밀려 남들처럼 졸업하고, 죽지 않기 위해 취업해 돈을 버는 허덕이는 삶은 싫었다. 평범한 삶을 위해 그 이상의 시간과 정신을 쏟기엔 젊음이 아까웠다. 그래서 '돈' '사회적 인정' '취업'이라는 가치를 내려놓은 채 잔잔히 그동안의 행적을 곱씹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무엇을 할 때 무아지경에 빠져 집중했는지 떠올랐다. 바로 '글쓰기' '미술 이론' '철학'이었다.

모두 취업이 어렵고 돈을 벌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 때문에 은근히 외면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된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찾아 전

과 신청을 했다. 1학년 때 우연히 수강했던 미술 이론 수업이 너무 재밌어 학기 내내 마음이 떨렸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공을 하고 한 학기가 지난 지금, 그 전보다 많은 활동과 직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이와 연계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경험의 가치는 돈과 스펙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것들로 환산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힌트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경험을 어떤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결국 개인의 통찰력과 견문에서 나온다. 사실 통찰력과 견문은 결국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시작은 다시 경험이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겪는 사건들을 운이나 불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가치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경험을 할지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경험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기고



차노희
소설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나 또한 실천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루에 10~15kg 배낭을 메고 30~40km씩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한 것을 건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때 체력은 건강의 기본이다. 특히나 배낭여행을 즐기는 나로서는 체력의 중요성을 올해에도 뼈저리게 느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키나와로 2주일 정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국내에서 검색한 하루 차량 렌트비는 5만~6만 원이었는데 막상 그곳에서 차를 빌리려고 하니 12만~15만 원을 달라고 했다. 형편상 세 배나 났던 렌트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차가 없다고 여행을 못하겠나 싶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두 번이나 다녀오고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대중교통과 경기로 구석구석을 탐방했던 나였다. 원래 내 전문은 '걷기'라는 것을 상기했다. 버스와 도보로 섬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했다. 버스와 버스 사이 걷기 등, 최단 거리 동선을 짜는 재미도 쏠쏠했다. 하루 2만 보에서 3만 보는 기본이

크로스핏(crossfit)에 빠지다

였다. 무엇이든 좋을 때 관리 유지가 필요한 법이다. 귀국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동 종목을 선택했다. 전에는 수영을 했는데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다. '크로스핏'(crossfit)이 내게 들어왔다. '크로스핏'은 '교차하다'(Crossover)와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역도 코치였던 그렉 글래스먼(Greg Glassman)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개에 달하는 박스(크로스핏은 'Gym'이라고 하지 않고 'Box'라고 칭한다)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나는 귀국하고 며칠 뒤인 1월 13일에 크로스핏에 입문했다.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크로스핏의 매력에 빠져 있다.

경험상 크로스핏의 매력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매력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성에 있다. 하루 하루가 늘 새롭다. 역도와 체조에 기반을 두지만 그것을 뼈대로 여러 종목들이 합해진다. 하루는 데드리프트 95kg을 연속해서 일곱 번 들기를 다섯 번 했다면 유산소 운동으로 이단 줄넘기를 100번 하기 등이다.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했던 것들이 집목된다. 학창시절 체육 선생 같은 코치가 매일 '오늘 해야야 하는 운동 계획'을 짜다. 그것을 와드(WOD: Workout Of the Day)라고 부른다. 버피, 풀업, 토투라, 푸시업, 줄넘기, 역도, 덤벨운동 등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구성되는 일종의 운동 사이클이다. 5년 차 베테랑과 2주 차 '초짜'가 함께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섯 가지 레벨이

있기 때문이다. R2(R×d2)가 최고 등급이고 R1(R1×d1), A, B, C, Boot 순이다. '생초짜'는 Boot이다. 나는 이제 Boot을 벗어나 C와 B등급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그리 높은 레벨에 육성을 부리지 않는다. 기본 자세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 배우는 데 더 중점을 둔다(내 인생에서 역도를 할 것이라고 언제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벌써 몸이 탄탄해지면서 군살이 빠지고 있다.

두 번째 매력은 팀워크이다. 혼자 기록을 달성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2인 1조나 3인 1조로 진행되기도 한다. 기록은 시간 제한을 두고 최대한 많은 반복 횟수를 만들어 내는 암랩(AMRAP)과 정해진 반복 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포 타임(For time)이 있다. 와드가 시작되면 협동심과 경쟁심이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아지고 단시간에 고강도 훈련이 된다.

세 번째는 역시나 극강의 효율성이다. 개인적으로 헬스는 의지박약으로 늘어서 늘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다. 하지만 크로스핏은 강제성이 있다. 딱 1시간이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체력을 넘어 멘탈까지 강화시켜준다는 점이다. 쉽지는 않지만 운동인데다 2~3명에서 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와드가 끝나면 흘러내린 땀보다 더 성취감이 물려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도 해냈다는, 일종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운동이 바로 크로스핏인 것이다.

社說

저수율 20% 붕괴... 절수로 제한 급수는 막아야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전남 상수원인 주암댐에 이어 동북댐 저수율마저 20%대가 붕괴됐다.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는 5월 말부터는 제한 급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기준 동북댐 저수율은 19.77%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5일 30% 아래로 내려간 이후 3개월여 만에 20%선도 무너진 것이다. 동북댐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제 광주·전남에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5~20mm가량 내리긴 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앞서 주암댐 저수율도 지난 5일 20% 아래로 떨어졌고 어제는 18.1%를 기록했다. 주암댐은 목포·나주 등 전남 11개 시·군과 광주 서남·광산구,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수돗물과 공업용수를, 동북댐은 광주 동·북구에 수돗물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저수율 급락은 강수량 부족 탓이다. 최근 1년간 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785.9mm

로 평년의 56.9%, 전남은 954.4mm로 평년의 66%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는 5월 말, 동북댐은 6월 말 고갈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관측이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광주 지역은 30년 만의 제한 급수가 불가피해진다.

물 부족이 심화되자 여수·광양 산단의 공장들도 정비 시기를 앞당겨 가동을 줄이고 있다. 모내기철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농업용수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제한 급수를 피하려면 장마철 전까지는 물을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수도계량기 수압 조절과 샤워 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등 절수 운동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물 절약 캠페인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수형 변기 교체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해수담수화나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심한 가뭄에 산불도 비상, 실화 방지 대책을

봄철 산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옛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운암산 일대에서 불이나 임야 4ha를 태웠다. 산불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등산객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산불이 인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소방 당국은 주민 A(53) 씨가 운암산 인근 대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길에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실화현의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비상한 예방 노력에도 산불은 줄지 않고 있다. 산림청 집계 결과 전남에서는 지난 12일 현재 29건의 산불로 56.49ha가 불에 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 피해 면적 44.21ha보다 증가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한 건이던 산불이 올해 여섯 건이나 발생, 4.44ha가 소실됐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발생한다. 전남에서는 2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4건이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전

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나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 58%에 달했다.

오랜 세월 공들여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실수로 송두리째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산불이 그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국이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와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선 이이다.

단속을 떠나 산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것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불법 소각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헬기와 산불 감시 인력도 대폭 확충해 산불이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인근엔 사찰이 많다. 마음 한 자락 내려놓고 옆 동네 마실 가듯 찾아가면 있고 있었던 봄꽃처럼 지척에 있다. 광주 도심의 무각사와 무등산 자락의 증심사, 화순의 운주사, 곡성의 태안사, 강진의 백련사, 장성의 백양사 등 곳곳에 지친 마음 쉴 수 있는 사찰들이 자리잡고 있다. 요즘 같이 갈등과 혼돈이 판치는 세상에 마음 다스리기엔 삶의 여백을 마주할 수 있는 사찰만큼 좋은 곳은 없다.

사찰의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담겨져 있다. 정갈하게 빗질된 대웅전 마당, 요

사찰 단상

어진다. 시들기 전에 떨어진 땀방울은 바닥에서 여전히 붉어, '두 번 피는 꽃'이라고도 한다. 이 잘 자란 나무들까지 누군가의 고단한 정성이 녹아 있다. 세상은 그런 것이라지만 새삼 고개가 숙여지는 지점이다. 풍파에 헤친 겸손을 여미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뚜렷해진다. 어김없이 오가는 계절도 확인해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과오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봄이 되니 사찰 주변의 꽃나무들이 눈에 띈다. 사람은 왔다가 가고, 꽃은 피었다 지는 단순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된다. 사찰 단상에 기댄 묵려도 /임동욱 선임기자 겸이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